

수 신 :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참 조 : 의사담당관

제 목 : ( 중구·성동구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왕십리로 가변차로 폐지와 도로교통공단 사거리 좌회전 신호 신설 )에 관한 청원


---

위 청원을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따로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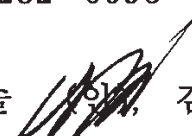

- 붙 임 : 1. 청원서 3부(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 명시)  
 2. 청원소개의견서 3부  
 3. 청원관련 참고자료 3부

○ 청 원 인

- 주 소 : 서울 중구 퇴계로 90길 74, 삼삼래미안 105-901

- 성 명 : 이정도   
 의 1087 명 (연서자 명부 따로붙임)

- 연락처 : 010-5232-0096

○ 소개의원 : 최판술 , 김기대 



# 청 원 서

제목 : (중구·성동구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왕십리로 가변차로 폐지와 도로교통공단 사거리 좌회전 신호 신설 )에 관한 청원

가변차로는 침두시 교통량에 따라 차로를 부여하여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교통체계관리기법(TSM: Transportation System Management)의 대표적인 차로통제 방안입니다. 유출입 교통량이 많은 도심 지역에 시간대별, 방향별 교통량이 상이할 경우 신호에 의해 교통량이 많은 주도로의 차로수를 늘려 통행하게 하는 제도로써 교통안전상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978년 '총력교통체계' 수립을 통해 가변차선제 시범운영에 들어가면서 81년 소공로 구간에 가변차선제를 최초 도입하였습니다. 이후 가변차선은 서울시내 총 16개 도로(총연장 19.74km)에 확대 적용하여 운영되었으나, 현재 2개소(소공로, 왕십리로)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구간은 유출입 교통량의 포화 및 교통상황에 따른 신호체계 변경 미흡, 충돌사고 위험 등으로 효력을 상실하여 효율성 분석을 통해 2001년 이후로 점차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2003년 7월 청계천 복원공사로 인한 교통 정체를 대비하여 홍인 사거리에서 도선사거리(마장로) 1.8km 구간과 한양공고 삼거리에서 왕십리 로터리(왕십리길) 2.3km 구간에 가변차선제를 시행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변차선제 도입 목적인 청계천이 2005년 10월 복원 된 이후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왕십리로 구간은 총 6차로로 서울 도심지의 사통팔달 구간으로써 동서축

가로망을 대표합니다. 특히 동대문 상권과 신당동 뉴스테이, 왕십리뉴타운 등 중구·성동구 도시재개발 사업과 접하고 준공업지역인 성수동, 일반상업 및 업무지구인 을지로, 퇴계로와도 근접하며 한강으로 이어지는 뚝섬유원지와 서울숲, 한양대학교 등이 연계되어 업무통행 외 여가통행과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교통망을 형성하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월요일에서 토요일 오전 7시~10시 유입 4개, 유출 2개 차로로 나뉘어 운영 중이며, 그 외 10시~오전 7시(익일) 유출입 3:3 동일차로로 운영되고 일요일과 공휴일 역시 전시간대 동일차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전과 오후 첨두시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어 유출입 방향별로 가로변 1차로씩 통행이 제한되면서 이용자 혼란 및 차로진입 혼동 등 통행위반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 12년부터 15년까지 4년간 왕십리길에서 발생한 중상사고 통계건수는 162건에 달합니다. 차대차 사고건수가 전체 건수의 62.1%를 차지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차대사람 36.2%, 차량단독 1.7% 순으로 교통사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이 서울시 평균 사고건수(15년 기준)가 50.56건인데 가변차로에서는 427.27건으로 가변차로의 사고비율이 무려 8배나 높습니다. 결국 이 가변차로로 인해 좌회전 차로 구성이 곤란하고, 시간대별 통행 방향을 오인하거나, 차로 폭 감소 등으로 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중구와 성동구 주민들은 지난 15년간 통행권 제한과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감수하면서 희생하였고, 가변차로를 도입한 목적도 사라진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변차로 폐지와 좌회전 신호 신설은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하

고 쾌적한 교통소통 체계 구축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불합리한 교통체계로 인해 많은 불편을 감수했던 주민들의 뜻을 모아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서울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처리와 적극적인 지지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청 원 인

- 주 소 : 서울 중구 퇴계로 90길 74, 삼상래미안105-901

- 성 명 : 이정도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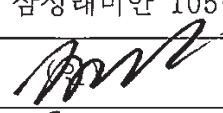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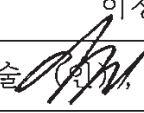

의 1087 명 (연서자명부따로붙임)

- 연락처 : ☎ 010-5232-0096

○ 소개의원 :

최판술 (인) , 김기대 (인) 

## 청원소개의견서

청원건명	중구·성동구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왕십리로 가변차로 폐지와 도로교통공단 사거리 좌회전 신호 신설	
청원인	주소	서울 중구 퇴계로 90길 74, 삼성래미안 105-901호
	성명	이정도 외 1087명 
소개의원	최판술 (인)  , 김기대 (인) 	
소개년월일	2017. 2. 16	
<p><u>소개의견</u></p> <p>청계천 복원 공사에 따라 설치된 왕십리로 가변차로로 인하여 중구와 성동구 주민들은 지난 15년간 통행권 제한과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감수하면서 희생하고 있습니다. 가변차로를 도입한 목적도 사라진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변차로 폐지와 좌회전 신호 신설은 중구, 성동구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 모두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불합리한 교통체계로 인해 많은 불편을 감수했던 주민들의 뜻을 모아 청원서를 제출하오니, 서울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여러분의 현명하신 처리와 적극적인 지지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p>		